하나님의 7가지 사랑의 언어

하나님을 듣다(Whisper)('19.5.31)

□ 지은이 : 마크 배터슨(Mark Batterson, National Community 담임목사)

□ 현대인은 모두 남들이 자기 말을 들어주기를 바란다. 우리가 사는 문화가 그렇다. 그런데 사실 할 말도 들을 말도 별로 없다. 듣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좋은 방법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경청할 것이다. 그들이 경청할 만한 답을 우리가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우리는 제 목소리를 찾아야 한다. 여기서 제 목소리란 우리가 삶으로 말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다. 하지만 목소리를 찾으려면 그분의 음성부터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소명을 발견하고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다. 분명 말하기는 쉬워도 따르기는 어렵다. 하지만 진심으로 결단하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Part 1.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고 계시는가)** 속삭임은 상대를 끌어당긴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신다.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목적은 음성을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최종 목적은 그분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속삭이신다. 그분은 되도록 우리와 가깝게 있기를 바라신다. 그만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좋아하신다.

○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만큼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조용히 작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능력만큼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게 된다. 그때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을 깨닫고 붙잡을 수 있다.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실현된다. 이는 분명한 기적이다.

○ 우리의 인생은 너무 시끄럽고, 하루는 너무 분주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린다. 하나님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듣고 싶다면 침묵이 답이다. 침묵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침묵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경청이다.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만 목소리로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않는 기도에는 백퍼센트 응답하시지 않는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차이다. 하지만 하나님께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강력한 것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다. 경청은 독백을 대화로 바꾼다. 정확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대화다. 몸을 숙이고 귀를 기울여 그분의 속삭임을 들으라. 그리고 대담한 기도를 드리라.

□ **(한순간도 말씀하지 않는 날이 없다)** 하늘 아버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3:17).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분은 특히 당신을 기뻐하신다. 당신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 **(인생의 모든 축복과 돌파구의 시작, 세미한 음성을 듣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입을 닫고 귀를 열어야 한다. 상대에게 순종하는 길은 진심으로 배려하고 참고 신중하게 경청하는 자세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다.

○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이상 들으라는 충고다. 우리는 처음 듣고 다시 듣는 사이에 성령님의 자극을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께 경청할 때는 바깥귀로만 듣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속귀로 다시 경청해야 진리가 머리에서 마음의 중심으로 내려간다.

○ 경청은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경청은 의도적으로 해야 한다.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만남의 장막을 쳐야 한다. 혼자 있어야 하고 침묵해야 한다. 방해물을 가차 없이 없애야 한다. 어떤 음성들은 줄이거나 아예 꺼야 한다. 라디오나 social-media처럼 무해한 것도 마찬가지다.

Part 2. 하나님의 7가지 사랑의 언어를 배우다.

□ **(성경 : 경청과 순종이 우리를 살린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은 영적인 최고의 훈련이고, 이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더 좋은 방법은 없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 구실을 하려면 해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한다. 그러나 목표는 우리가 성경을 완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완성하는 것이다.

○ **(성경을 배우는 목적)**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다. 결국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 배움의 목표는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그분을 친밀하게 사귀며 성장하는 것이다.

- '성경-성령=성경 숭배' 성령을 공식에서 빼면 우리에게는 율법의 문자만 남는다. 율법의 문자는 생명을 주지 않는다. 결국 바리새인처럼 법만 따지는 규칙과 율법주의라는 죽은 종교만 남는다.

○ 성경을 읽기만 하지 말고,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한다. 아니, 그보다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살고 사랑하는 방법을 바꾼다. 성경은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에만 살아난다.

○ '독서'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서 멈춘다. '묵상'은 단어와 구절을 꼭꼭 씹는 과정이다. 말씀을 해부하지 말고 말씀으로 나를 해부해야 한다. '기도'는 말씀의 맛을 음미하는 것이다. 기도는 훈련을 소망으로 바꾸며, 이를 통해 의무적으로 하던 일들이 기쁨으로 변한다. '관상*(觀想)은 말씀을 소화하고 영양분을 흡수한다. 그때 말씀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간다.

* (종교) 신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사랑하는 일.
(천주) 마음이 사색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단순하며, 사랑에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응시하는 기도의 경지

□ **(소망 : 마음의 소원을 통해 말씀하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안타깝게도 이 구절을 거꾸로 읽는 사람이 많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을 모두 소유한 뒤에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 번째나 세 번째, 열 번째로 찾으면서 마음의 소원을 달라고 구할 수 없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다는 것은 처음과 끝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다.

○ 우리는 자기 욕구보다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해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우리는 불만스러워도 '당위성'을 받아들인다.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서 주의 기쁨을 느낄 수 없다고 슬퍼한다. 우리가 슬픈 것은 잘못된 음성을 듣기 때문이다.

○ 시간이 흐를수록 재능보다 열정이 더 중요하다. 열정은 끝내 재능을 이긴다. 사랑하지 않는 일을 하고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일을 하자. 열쇠는 재능과 열정이 겹치는 곳을 찾아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찾으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욕구를 찾으면 최고의 열정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 재능과 열정이 겹친 곳이 최적점이다.

○ 하나님 나라에서 잘못된 동기로 옳은 일을 하면 업적을 인정받지 못한다. 문제는 동기다. 오직 동기가 옳아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는 동기가 복잡하고 무한한 방법으로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욕구의 언어를 분별하기 어렵다. 나는 하나님이 감정을 사용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지만 우리는 감정 때문에 탈선하기 십상이다.

○ 우리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나치게 걱정한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충분히 걱정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욕구보다 남들의 기대를 앞세운다. 어떤 결과가 생길까? 그 욕구들은 무덤에 묻힌다. 결국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 **(열린 문 : 문이 닫혔는가, 새 길이 준비된다)** 세 번째 언어는 표적이다.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신앙의 시금석으로 삼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서 그 가치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성경을 표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하며, 표적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표적을 말씀과 뜻을 뒷받침하는 데 쓰신다.

○ 하나님은 닫힌 문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문을 닫음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바꾸신다. 하나님은 문을 닫아서 우리가 최선을 놓치지 않게 하신다.

□ **(꿈 :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신다)** 겸손한 마음으로 갈망하면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당신을 통해서 못하실 일이 없다. 사실 당신이 더 겸손할수록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리란 것을 알고 더 큰 꿈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이루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사실 꿈을 이루는 것은 부차적인 일이다. 으뜸 목표는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이다.

○ 꿈이 크면 위대한 사람이 된다. 위대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만한 꿈을 이루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다. 그분 없이는 꿈을 실현할 수 없다. 하나님만한 꿈을 꾸는 사람은 조금 더 기댈 수밖에 없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지에 이를 것이다.

□ **(사람 :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가 독단적인 자만에 빠져서도 안 되고, 고독한 독방에 갇혀서도 안 되며, 겸손하게 살면서 가능성을 발견해야 하기 때문이다.

○ **(조해리의 창)** 인간의 성격을 네 가지로 분류한 '조해리의 창'은 인간의 성격과 정체성을 들여다보는 창문이다.
①열린 창,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나'를 보는 창. 즉, 공개된 자아로서 페이스북에 올리는 내용이다. 모두 알고, 모두 보는 내용이다.
②숨겨진 창, '나는 알되 너는 모르는 나'를 보는 창, 즉 나의 분신이다. 보는 눈이 없을 때 내 모습이다.
③보이지 않는 창, '나는 모르지만 너는 아는 나'를 보는 창이다. 바지 지퍼를 채우지 않은 채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하는 내 모습이다. "지퍼 채워!"라고 말해 줄 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④미지의 창,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나'를 보는 창으로 당신의 가장 진실한 모습이다. 하나님이 주신 열정,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만한 꿈이다. 그분은 당신에게 잠재력을 주셨고, 그 잠재력은 그분을 만나야 열린다.

○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다)** 은혜롭지 않은 인간관계는 심장이 없다. 진리가 없는 인간관계는 머리가 없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인간관계는 진실하다. 그제야 우리는 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①책망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당신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당신을 책망할 권리를 주고, 그가 싫은 소리를 할 때는 주의 깊게 경청해야 한다.
②비판의 화살이 당신의 심장을 뚫기 전에 먼저 성경으로 거르자. 성경에 맞지 않으면 버리고 맞으면 회개하라.
③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결정하지 말자. 성경은 지혜로운 충고를 받으라고 권면한다. 혼자서 달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④총고하기 전에 오래 깊이 경청하자. 우리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남이 말하는 동안 내가 할 말을 준비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말하려고 듣지, 들으려고 듣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들은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해보자.
⑤책망하기 전에 늘 칭찬하라.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를 강하게 심판하지만 늘 칭찬의 말을 앞세우셨다.
⑥힘든 대화는 참을수록 더 힘들어진다. 상대가 상처를 입을 것 같아도 해야 할 대화는 해야 하지만 그럴수록 동기를 확실히 점검해야 한다. 속이 후련해지려고 하는 말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인도하심 :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연이란 없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려면 그분의 자극을 인지하는 시계가 마음에 있어야 한다. 알맞은 때에

알맞은 곳에서 알맞은 사람들을 만나는 초자연적인 동시성으로 이끄는 그런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시간을 가리키는 시계가 내면에 있어야 한다.

○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지혜)**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주시지 않을 만큼 지혜롭다. 그분은 그렇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지름길로 가지 말자. 차선에 만족하지 말자.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의 것을 구하자. 그리고 기다리자.

○ **(우연과 섭리의 차이)** 우연과 섭리의 차이를 수학 공식으로 분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것을 좋아하신다. 또한 가장 자격 없는 후보자를 사용하셔서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좋아하신다.

○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으면 기도하자.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시는 것 같으면 섬기자. 하나님이 베풀라고 하시는 것 같으면 베풀자. 하나님이 설계하셔도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 기도든 섬김이든 베풂이든 우리의 순종은 누군가에게는 기적일지도 모른다.

○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인생을 마감하는 날 숱한 실수 때문에 후회할 것이다. 하지만 기회를 잡지 못한 것 때문에 더 많이 후회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의 음량을 높여서 그분의 음성이 가장 크게 들리게 해야 한다.

□ **(고통 : 가장 비참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모든 즐거움의 가장 순수한 형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물론, 합당한 욕구를 불합리하게 채우면 그런 즐거움은 악한 오락으로 바뀐다. 그럼에도 즐거움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분은 그런 즐거움을 통해서 속삭이신다.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에도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 **(고통이라는 선물)**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상처는 계속 재발할 것이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현상 유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치명적인 문제를 무시할 것이다.

○ 우리는 대부분 '고통 없이 고통 없이'라는 철학을 더 좋아한다. 우리는 마찰이 적은 길을 선택하지만 그 길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도착할 수 없다. 고통을 추구하자는 말은 전혀 아니다. 우리가 찾아가지 않아도 고통은 금방 우리를 찾아온다. 그러나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피하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 고통을 헤치고 나아가 하나님이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 **(당신을 향한 끝없는 하나님 음성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에 모든 것에 사랑으로 대답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게도 덜 사랑하게도 만들 수 없다. 하나님은 당신을 완전하게 사랑하신다. 그분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무조건 믿어야 한다.

○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신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그분은 자신의 마음을 듣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그분은 더 작게 속삭여서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신다. 우리가 마침내 가깝게 밀착하면 그분은 우리를 와락 안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다.